



작년 신생아수 13,730명

광주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

6년만에 증가세... '즈믄동이' 빼면 12년만에 처음

광주의 신생아 수가 6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광주시에 따르면 2006년 광주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1만3천730명으로 2005년보다 502명(3.8%)이 증가했다. 이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계속 내림세를 보이던 신생아 수가 처음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신생아 수가 늘어난 것은 밀레니엄 베이비(즈믄동이) 출산 붐이 일던 2000년 한해 뿐이었으며 2000년을 제외한다면 광주의 신생아 수는 1995년 이후 11년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관심의 초점은 과연 지난 해 처음으로 나타난 신생아 수의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본격적인 신생아 증가 추세인지의 여부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불임부부 지원

등과 같은 각종 출산 장려 대책을 내놓으면서 젊은 부부를 중심으로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보육관련 전문가들은 쌍춘년에 따른 결혼 급증, 국가적인 출산 홍보 등으로 인해 늦둥이를 갖는 중년부부가 늘어난 것을 비롯 사회적 분위기의 반전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와 보건소 관계자 등 의료 전문가들은 "과연 출산 저점을 통과한 것인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일시적인 것인지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광주의 신생아는 통계가 시작된 1990년 1만7천388명을 기록한 이후 1994년(2만2천538명)까지는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1995년 2만2천861명으로 정점을 이룬 광주의 신생아는

1997년 2만1천611명, 1999년 1만9천84명, 2001년 1만8천55명으로 줄어 들었고 2004년 1만4천610명을 기록, 1만5천명선 밑으로 떨어졌다.

2000년에는 전국적으로 즈믄동이 열풍이 불면서 전년 대비 10% 가량 증가한 1천903명이 더 태어났다.

하지만 2000년의 이상 증가는 곧바로 감소 현상을 불러, 2001년에는 2천932명이 줄어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데 이어 2002년에도 2천155명이 줄었다.

이와 함께 보성군도 2006년 신생아가 423명으로 2005년(369명)에 비해 14.6%나 증가했으며, 강진군도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신생아 수가 늘어나는 등 전남 지역 상당수 지자체의 신생아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보리야! 무럭무럭 자라렴...

절기는 여전히 한겨울이지만 매일 이어지는 포근한 날씨에 어린이들의 마음은 한없이 부풀어 가깝다. 21일 해남 YMCA 어린이스포츠타운 유치원생 40여명이 해남군 마산면 들뜰에서 보리밭 밭기를 하고 있다. /위지라기자 jrwi@

정동영 탈당 시사... 與 분당 위기

"대통합 좌절되면 결단"... 40~50명 공감

盧대통령 내일 신년연설... '개헌 탈당' 주목

전당대회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선 도탈당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동영 전 의장까지 탈당 불사 입장을 나타내면서 열린우리당의 분당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23일 대국민 신년연설과 25일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개헌을 위한 탈당 등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통합신당 추진에 반대하는 사수파의 움직임과 관련, "소수 개혁모험주의자들의 지분정리, 기득권 지키기 정치가 계속된다면 그들과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당의 대통령신당 추진에 반발하면서 당 지도부의 입장과 달리 기간당원제에 기초한 전당대회 개최

를 주장해온 사수파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경우에 따라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현재 선도 탈당론에 공감하는 의원의 수는 공개적으로 탈당의사를 밝힌 임동연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의원들과 천정배 의원 등 신당 강경파, 수도권 재선그룹, 관료 및 전문가 그룹 등 40~50명에 달한다는 게 신당파측의 주장이다. 이들 가운데 20

21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통합신당 추진에 반대하는 사수파의 움직임과 관련, "소수 개혁모험주의자들의 지분정리, 기득권 지키기 정치가 계속된다면 그들과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당의 대통령신당 추진에 반발하면서 당 지도부의 입장과 달리 기간당원제에 기초한 전당대회 개최

를 주장해온 사수파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경우에 따라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현재 선도 탈당론에 공감하는 의원의 수는 공개적으로 탈당의사를 밝힌 임동연 의원을 중심으로 한 호남지역 의원들과 천정배 의원 등 신당 강경파, 수도권 재선그룹, 관료 및 전문가 그룹 등 40~50명에 달한다는 게 신당파측의 주장이다. 이들 가운데 20

21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통합신당 추진에 반대하는 사수파의 움직임과 관련, "소수 개혁모험주의자들의 지분정리, 기득권 지키기 정치가 계속된다면 그들과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당의 대통령신당 추진에 반발하면서 당 지도부의 입장과 달리 기간당원제에 기초한 전당대회 개최

를 주장해온 사수파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경우에 따라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우리당의 대통령신당 추진에 반발하면서 당 지도부의 입장과 달리 기간당원제에 기초한 전당대회 개최

당이 현실화되는 것은 물론 사실상의 분당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법원이 기간당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당헌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오는 29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당헌개정을 재추진키로 결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평창서 규모 4.8 지진... 전국 흔들려

역대 8번째 강진

지난 20일 오후 8시 56분 51초경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관련기사 8면〉 기상청 관계자는 "규모 4.8의 지진은 땅과 건물이 흔들리고 대부분 사람이 지진임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밝혔다.

평창과 속초지역의 경우 3~5초 동안 건물과 유리창의 흔들림이 감지됐으며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 진동을

많이 느꼈다. 소방서와 경찰서, 기상청 등에는 문의전화 폭주, 거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강릉지역 유선 및 휴대전화 통화가 한때 불통됐다.

이번 지진은 지난 78년 홍성 지진 이후 29년만의 강진으로, 지하 10km 아래에 있는 지각이 압력을 받아 쌓였던 스트레스가 순간적으로 폭발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평창지진이 기록한 리히터 규모 4.8은 관측사상 8번째다.

지진 발생 직후 광주시와 전남도소



방분부에도 "땅이 흔들린다"는 전화가 10여 통 걸려왔으나, 피해 신고는 없었다. /이승배기자 lsb54@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집중중!
http://marathon.kwangju.co.kr | 전화: (062)220-0541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지난 4년 동안 법무법인 은누리과 변호사 조기진·진용래 합동사무소에서 변호사로써 활동하다가 이번에 단독으로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확립 및 약배」 -
-전남 임명준(80년, 20회), 진용래(83년, 9회), 전남대사(대부고)(86년, 7회), 현안대 법과대학 법학대(89년, 86학번) 각 졸업
-2000. 12. 제42회 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 2. 법무법인 은누리 변호사
-2003. 10. 변호사 조기진·진용래 합동사무소 변호사
2007년 1월
변호사 진용래 올림
■법무기사: 2007. 1. 2.(8회)
■개업주소: 광주동구 자갈동 70-15(3층) 별채 후문 앞
■개업시간: 2007. 1. 29.(월) 16:30~21:00
■대표전화: (062)226-2080~1630(062)226-2084

ALL LASH MASCARA
LANEIGE